

노후 건강 걱정한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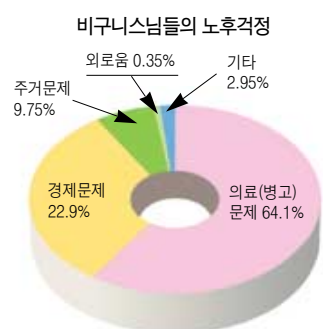
비구니스님 420명 설문 ... 87%가 소박한 수행처 원해

동국대 김미영 씨 '...노후복지' 논문서 밝혀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은 노후문제와 관련, 자신의 건강과 질병, 거주 공간, 소득문제 순으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동국대 행정대학원 김미영 씨가 발표한 2003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조계종 비구니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불교계 전반의 노후복지문제와 관련해 학계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등에서 몇 차례 발표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영 씨의 논문은 운문사, 중앙승가대, 비구니 선원 4곳 외에 일반 사암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구니(사미니) 420명을 대상으로 주거공

간, 의료건강, 소득과 노후복지 육구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64.1%의 스님들이 자신의 노년 건강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수행력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선방수좌들의 전통적인 풍토가 아직도 강한 탓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스님은 고작 6.6% 수준이었다. 승려전문 병원 개원의 필요성도 절실해 보였다. 실제로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김동일 교수는 "여성 수행자의 신체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스님들은 일반병원을 찾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2003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노후에 조용히 정진하면서 지낼 수 있는 조그마한 수행처를 원한다는 대답이 86.9%로 가장 많았다. 잘 차려진 처소보다는 편안하게 쉬면서 열반에 들 때까지 정진할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소득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도 심각했다. 사찰에서 주지나 다른 소임을 살지

않는 67.8%이상의 스님들은 정기적인 보시가 없는 경우로, 대부분 속가 친척이나 도반사찰, 혹은 신도들의 부정기적인 보시에 의지하는 경우가 76.1%나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이와 관련 "가톨릭의 경우처럼 완전보장방식의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스님들도 상호·공제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의 승람을 가진 스님들에게 거처와 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들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씨는 "출가자인 승려가 무슨 노후 복지를 걱정하는가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 생활의 문제를 벗어나 여법하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구니의 노후복지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줬다"며 이번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부처님께 금메달 바치겠습니다"

경기도 불암사(주지 일관)는 7월 28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불암사 연수원장 수월 스님, 국가대표 지도위원 주희봉, 농구 감독 박명숙, 코치 정성숙, 전기영, 선수불자회 회장 김인섭 씨 등 아테네 올림픽(8.13~28) 참가 선수 30여명과 신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들을 격려하는 환승법회를 갖고 선전을 당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도룡농 소송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족

도룡농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본부가 발족한다. 지을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시위가 30일째(7월 30일 현재)를 넘어서

고 있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은 7월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도룡농 소송 승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조계종 원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분야별·지역별 '도룡농 소송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꾸릴 방침이다.

조계종 영남지역 교구본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소속 본말사 스님들도 7월 29일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수경·도법 스님 등은 7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을 만나 천성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으며, 삼소회 소속 원불교, 천주교 성직자 6명 등 종교계 인사들이 지을 스님을 연일 격려 방문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혈관계 질환 발병률 일반인 3배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비구니스님 125명 검진결과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정지현 원장과 김동일, 최민선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월 27일부터 열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기간 동안 실시한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지현 교수는 이번 대회가 열린 5일간 비구니 스님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검진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표본대표성을 가진 60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진에 응한 비구니스님 가운데 간염항체를 가진 스님은 30%를 밀돌아 대중생활을 하는 스님들의 정기적인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부분 스님들이 채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분과 지간동인 실시한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지현 교수는 이번 대회가 열린 5일간 비구니 스님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검진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표본대표성을 가진 60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71.0%의 스님이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료지침'이 제시한 기준인 23.36±4.26kg/m²를 초과했다.

일반인들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평균 45세에 폐경을 맞아 호르몬의 불균형문제로 심각했다. 특히 오랜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정지현 원장은 "비구니 스님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절실한데도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인, 특히 비구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종단이 스님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8월31일 발간되는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하와이에서 열리는 영어·역사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청소년 40여명이 7월 29일 인천공항에서 호신봉을 들어 보이며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하와이서 영어·역사캠프

本社 주최, 7월 29일 출국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는 영어·역사문화체험 캠프가 7월 29일부터 시작돼 8월 19일까지 21박22일간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고 폴리네시아 및 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원어민 교수진이 미국의 어학연

수기관 교재를 사용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일간 불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마련된 '김원우 기자와 함께 하는 하와이 캠프' 방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활을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하와이 캠프 블로그 주소: http://218.38.19.103:2200/blog/lwkim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도명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 대표 737-8881

"희망이 안 보인다... 세상이 모두 적이다... 말할 수 없이 외롭다!"
절망 앞에 선 이를 위한 명상 - 「무심無心」!
 KBS, MBC, SBS, 조선일보 등 20여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 각계 인사들이 추천한 2004년 최고의 명상서!
 명상마음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지도자이다. 중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수선대'에서 법과 비움과 더불어 자연인으로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법들을 지도하고 있다.
명상가 문화영의 희망 명상집
무심
 N.AVER 검색창에 [무심]을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무심을 찾아보세요: www.Mymysim.com
 도서 수선재 TEL. 02)391-9315 FAX 02)391-9314